민주 텃밭 광주·전남 경선…후보 선출 '운명의 1주일'

23~26일 광주시장 경선…전남지사는 김영록 지사 단수 공천
광주 동구 임택·남구 김병내 현 청장 압도적 차이로 공천 확정
기초단체장 후보 30일까지 선출 후 재심 거쳐 5월초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6·1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이 진행중이다.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점 때문에 주말과 휴일에도 각 경선 후보 간 세 결집, 지지선언 등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대 관심사인 광주시장 경선은 지난 23일 시작돼 26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 온라인·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합산한 방식(국민참여경선)이다. 9만3000명 규모의 권리당원은 23~26일 온라인·ARS 투표로, 6만 명 규모의 일반 시민은 24~25일 ARS 투표로 경선에 참여한다. 경선 결과는 26일 투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표될 예정이다.

전남지사는 김영록 현 지사가 단수 공천됐다.

김 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되는 기초단체장 경선은 지난 21일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지난 22일 끝난 경선에서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로는 재선에 나서는 임택 현 동구청장과 김병내 현 남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동구청장 경선에서는 임 청장이 과반을 넘긴 50.66%를 얻어 강신기(11.82%)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김성환(31.15%) 전 동구청장, 진선기(6.36%)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이겼다.

남구청장 경선에서는 김 청장이 68.36%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김용집(17.47%) 광주시의회 의장, 박기수(14.17%)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직속 정무특보단 광주공동본부장을 꺾었다.

광주 북구청장 후보로는 단수 공천된 문인 현 북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 단체장의 이탈로 경쟁이 치열해진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은 29~30일 실시될 예정이다.

서구청장 경선에는 김보현·김이강·황현택 후보, 광산구청장 경선에는 박병규·윤난실·최치현 후보가 나선다. 하지만,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에서 각각 컷오프된 배인수 전 서창농협 조합장과 김학실 전 광주시의원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26일 재심위원회와 27일 비대위 결정이 주목된다.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현역 단체장인 김산 무안군수·유두석 장성군수·강인규 나주시장을 공천 배제(컷오프)한 전남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중 명현관 현 해남군수만 단수 공천되고, 나머지 지역 20곳은 4인 경선(4곳), 3인 경선(8곳), 2인 경선(8곳)으로 치러진다. 장흥은 경선 논란으로 아직 미정이다.

4인 경선 지역은 여수(강화수·권오봉·전창곤·정기명), 순천(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완도(김신·신영균·신우철·지영배), 구례(김순호·박양배·신동수·왕해전)군 등이다. 하지만, 순천의 경우 경선 후보에서 컷오프 됐던 노관규 전 시장에 대한 재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5인 경선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노 전 시장이 경선에 합류할 지는 25일 열릴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3인 경선이 실시되는 곳은 강진(강진원·서채원·이승옥 후보), 나주(윤병태·이민준·최용선), 광양(김재무·문양오·이용재), 장성(김한종·박노원·유성수), 영암(배용태·우승희·전동평), 무안(강병국·김대현·이정운), 신안(김행원·박석배·박우량), 담양(김정오·이병노·최화삼)이다.

2인 경선은 목포(강성휘·김종식), 곡성(이상철·이재호), 고흥(공영민·박진권). 보성(김철우·임영수), 화순(구복규·문행주), 진도(박인환·이재각), 영광(김준성·이동권), 함평(김경자·이상익)이다. 장흥군수 후보 경선은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직 경선 방식, 경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재심을 거쳐 5월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25~26일로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정의당 한덕수 인사청문회 연기 요구

"자료 제출 안돼…이대론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일정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감지된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그간 요구받은 검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25~26일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 25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는 식물 청문회가 되고 국회는 동물 국회가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인수위, 내일 국정과제 3차 선정안 보고

내일 미래먹거리·금주 코로나 대책
30일 확정안…5월초 대국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한다.

3차 선정안은 사실상 최종안이며, 윤석열 당선인의 확인을 거친 '확정안'을 30일까지 마련한 뒤 5월 초 대국민 발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한 25일 새 정부의 미래먹거리 정책 추진 계획,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4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우선 인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한다. 인수위는 지난 18일 국정과제 2차 보고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위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거의 최종안으로, 국정과제 모양은 이제 다 나올 것"이라며 "마지막 확정안은 이달 30일에 나온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예산 소요 규모나 추가 이행 계획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발표는 좀 뒤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는 5월 2일 또는 3일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당초 발표는 5월 2일로 예상됐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5일이 어린이날 휴일이라, 늦어도 그 이전까지는 국정과제 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발표가 끝나면 인수위 업무는 사실상 끝나는 셈이라 이르면 6일 인수위 해단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인수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많은 내용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외부에 발표하지 않다보니 '정책이 안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릴 때로 내일 미래먹거리, 이번 주 내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에는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윤한홍 의원,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청와대 이전·개방에 대해 발표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늘 출입기자 고별 간담회

손석희와 대담 방송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언론을 직접 만나는 사실상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25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특별 대담이 방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JTBC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담 예고편을 공개하기도 했다.

예고편에는 손 전 앵커가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선거용이죠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도 안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